

롯은 아브람의 조카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롯은 하란의 아들이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람이 우르를 떠나올 때에도, 많은 소유를 모았던 도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도 동행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함께 했다. 아브람의 신앙 여정과 나그네길 모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롯이었다. 롯은 단순히 아브람에게 딸린 식솔이 아니었다. 자기 가족, 자기 가축들, 자기 종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모는 아브람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 창세기 13:5-6

두 사람은 가축을 방목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다. 가축은 많고 기근까지 있어 목초지가 부족했다. 결국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 주인의 가축을 먹이겠다고 다투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보다 못한 아브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대로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먹고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넘겨주었다.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너 먼저 살고 싶은 곳 정하면 그 나머지를 내가 택하겠다 말한 것이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 창세기 13:9-10

롯의 선택은 요단 땅이었다.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애굽 땅과 같아서였다. 지금까지 아브람과 함께 걸어온 길은 사막과 오아시스, 물 없는 광야길이었다. 단 한번 풍요로운 곳에 머무른 때가 있었는데 그곳이 애굽이었다.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에서 롯이 목격한 것은 풍요 그 자체였다. 애굽은 남에서 북으로 길게 흐르는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거기서 비롯된 비옥한 토지가 있는 나라였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 아직 기근의 여파도 남아 있고 종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때 롯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 그의 선택 기준은 먹고 살기 좋은 땅, 애굽과 같은 땅이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 창세기 13:12-13

요단 온 땅을 택한 롯은 조금 더,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거주지를 옮겼고 마지막 정착지는 소돔이었다. 소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분명하다.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했고 큰 죄인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이 연상될 만큼 풍요로웠고 얼마 전 목격한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먼 길을 동행한 롯이었다. 아브람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을 떠날 때도, 기근을 피해 무서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롯은 동행했다. 아브람이 겪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롯은 함께 겪었다. 고난 중에 본 애굽의 풍요로움은 가나안의 황량함과 더욱 대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걸으며 마음에 새겨진 생각은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고난의 끝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왔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여기까지도 롯은 동행했다. 그러나 롯의 마음 속에는 애굽의 풍요로움에 대한 깊은 동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롯은 소돔으로 향했다. 그리고 소돔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롯은 알지 못했다.

고난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의 끝에 일그러진 내면과 고약한 성질머리만 남는 사람도 있다. 고난이 단지 고생으로 끝나게 해서 안된다. 고난 끝에 남은 것이 '그때는 그랬지...'하는 회상이나 무용담이 되어서도 안된다. 내가 믿음의 사람과 동행했다고 해서 내 믿음도 좋은 것은 아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결과물을 손에 쥔 것 같아도 나에게서는 내 믿음, 내 선택이 있다.